
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12. 7.(화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	담 당 자	• 과장 성은하, 사무관 김창우, 주무관 고병국 ☎ (031) 210-2770, 2773  • 센터장 김혜원, 사무관 이원국 ☎ (031) 210-2791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위성 · 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린다

### - 7일 국토위성 ·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· 세미나 개최 -

- 국토지리정보원(원장 사공호상)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 - \* (일/시/소) 21.12.7. 11:00,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
  - 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,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, 송석준 의원, 조명희 의원,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이 참석하였다
  -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, 국토지리정보원 유튜브([bit.ly/3IfAqBB](https://bit.ly/3IfAqBB))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.
-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,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, 항공정사영상 촬영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.

- 기념식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되었다.
-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기념사에서 “국토위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재난재해 적기대응과 3차원 공간정보,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역할”을 강조하였다.
- 이어,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·초융합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를 비롯한 산업발전을 선도하여 미래전략 핵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전을 독려하였으며,
-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원동력임을 강조하며, 국회도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박광온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해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였다.
-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①국토위성 시대의 개막, ②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, 전문가 발표와 정부, 지자체, 학계, 언론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.
- 먼저, 「국토위성 시대의 개막」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위성센터는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국토위성의 본격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,
- 국토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고정밀의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되어 12월 말부터 국토정보플랫폼(map.ngii.go.kr)을 통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DATA 구축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과 스마트 건설에서 측량의 역할변화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전자통신연구원은 수요 맞춤형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여러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‘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가능성’을 제시하였다.
- 발표 후에는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국토부, 서울시, 학계, 산업계, 언론 등이 참석하여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방향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.
-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회사 및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트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구현되고 있는 현실의 기술이며,
  -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공간 DATA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(Ubiquitous) 공간 DATA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,
  - 또한, 국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정밀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, 국토현황 주제도 등 공공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김창우 사무관(☎031-210-27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

## 행사 일정

구 분	시 간		세 부 내 용
1부 기념행사	11:00 ~ 11:03	3'	○ 개회 선언
	11:03 ~ 11:08	5'	○ 주요 내빈 소개
	11:08 ~ 11:12	4'	○ 선포식 퍼포먼스
	11:12 ~ 11:17	5'	○ 인사말씀 (지리원장)
	11:17 ~ 11:20	3'	○ 기 념 사 (주택토지실장)
	11:20 ~ 11:30	10'	○ 축 사 (국회의원 3명)
	11:30 ~ 11:35	5'	○ 주요내빈 기념사진 촬영
	11:35 ~ 11:40	5'	○ 주요내빈 국토위성센터 이동
	11:40 ~ 12:00	20'	○ 위성센터 시설 견학, 장비 시연 등
2부 세미나	13:00 ~ 13:45	45'	<b>①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</b> (발표 1) 위성 운영시스템 추진 현황과 계획 / 박수영 연구관 (발표 2) 국토위성정보 서비스 전략 / 양호진 연구관 (발표 3)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전략 / 김태정 교수
	13:45 ~ 14:05	20'	○ 휴식
	14:05 ~ 14:50	45'	<b>②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전략</b> (발표 1) 국토지리정보원의 디지털트윈국토 현재와 미래 / 김창우 사 (발표 2) 정밀위치정보 제공 및 스마트 건설측량 추진전략 / 안영준 주 (발표 3) 디지털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/ 장인성 실장(ETRI)
	14:50 ~ 15:10	20'	○ 휴식
	15:10 ~ 16:30	80'	○ 전문가 토론 * 패널(7명) : 박종현 부원장(한국전자통신연구원), 윤종수 과장(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), 서미연 팀장(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), 한국측량학회장, 대한원격탐사학회장, 이강원 대표(서울공간정보), 이유정 기자(한국경제)
폐회	16:30 ~ 17:00	30'	○ 종합 및 정리

# 「국토위성」과 「디지털 트윈국토」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!

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

2021. 12. 7(화) 11:00

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

